



공직사회에 기부문화 싹튼다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 '후끈'

제주 공직사회에 기부문화가 싹트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부터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사회분위기 조성 및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내 공직자들은 1계좌당 월 1만원 이상, 서기관 이상 간부공무원은 2계좌 이상 사랑의 열매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5월말 현재 1504계좌가 개설돼 2억1600만원의 기부금이 조성되는 등 공직자가 도내 기부문화의 열기를 높이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공공기관, 출연·출자기관,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3500명의 후원계좌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할 경우 올해 모금목표액 22억원의 20%인 4억 2000만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기부금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 운영되며, 기부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아간에도 요양보호사 부르세요
시설탐방-제주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사회복지소식 4·5면
찾아가는 학교사회복지·소식마당
푸드뱅크·알림마당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자원봉사활동 진흥 세미나

SK에너지, 3년째 '꿈이루기성장프로그램' 후원

“애들아, 너희들의 꿈을 활짝 펼치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제주에서 '행복날개'를 활짝 펴고 있다. SK에너지(주)가 3년째 도내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신적·육체적 성장을 위해 '꿈이루기성장프로그램'에 후원, 고마움을 사고 있다.

SK에너지(주)는 2006년부터 해마다 2억원을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사업으로 기부, 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가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는 프로젝트를 내걸고 '행복날개 유소년축구단 운영'을 비롯해 '행복한 문화나들이', 'Happy Dream-Kick 축구대회' 등의 다양한 테마로 '꿈이루기성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4팀을 추가로 창단,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8개 축구팀(행복팀 4팀, 날개팀 4팀)이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축구지도자로부터 주 3시간 이상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 축구팀에는 유니폼과 축구화, 축구공 등 축구용품 일체가 지원됐다.

특히 행복날개 유소년축구단은 운영 3년째를 맞아 가

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소년축구단에 참여했던 어린이 가운데 일부는 기량이 부쩍 늘어 제주도 대표로 선발돼 전국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으며, 제일지역아동센터 Top FC는 지난 5월 열린 제 3회 CJ컵 도너스캠프 전국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제일지역아동센터 박영식 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꿈과 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달라”면서 축구팀 창단과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SK에 고마움을 전했다.

10월에는 축구팀들의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확인하는 'Happy Dream-Kick 축구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열릴 예정이다. 올해 축구대회는 함께 참가한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한마당 잔치'로 개최된다. 또 물나들이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행복한 문화나들이'와 '행복캠프'도 실시된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제주를 찾은 SK에너지 임원진들이 손수 김장 200포기를 담가 혼자 사는 노인 등 저소득 110가구에 전달하기도 했다.

제2회 희망제주 복지포럼 개최 안내

제주지역의 각종 사회복지 분야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모색을 위해 2008년도 테마기획지원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여 **희망제주 복지포럼**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제1주제〉 청소년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이명박 정부와 한국의 청소년복지'

- 좌 장: 남진열 교수(제주대학교행정학과)
- 발제자: 문성호 교수(중앙대학교청소년학과)
- 토론자: 유용식 교수(세명대학교사회복지학과)
- 한샘 소장(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제2주제〉 지역사회 중심 교육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희망스타트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좌 장: 전영록 교수(제주관광대학교사회복지과)
- 발제자: 김민교수(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 토론자: 허경미 팀장(제주종합사회복지관)
- 양연숙 프로젝트 조정자(제주시 교육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 일 시 : 2008. 7. 4(금) 14: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삼다수홀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 지 원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야간에도 요양보호사 부르세요”

야간·휴일 20~30% 수가 가산제 시행 복지부 “노인부부 취약시간대 매우 유용”

앞으로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급히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보호사를 부를 수 있게 됐다. 요양보호사를 부를 경우에는 20~30%의 수가가 가산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6월 25일 고시를 통해 공포했다. 수가 가산제도는 이달부터 시행된다.

공포된 가산수가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야간(오후 6시~오후 10시), 심야(오후 10시 이후), 휴일로 각각 나눠 적용된다.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수가의 20%가,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에는 30%의 수가가 가산된다.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총 서비스 제공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수가의 20%가 가산된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간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휴일수가 가산과 중복 가산은 하지 않는다.

휴일수가는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

우에 해당되며, 30%의 수가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 방문 요양을 120~150분 받을 경우 수가는 2만6700원이지만 오후 10시 이후 받게 되면 130%인 3만4710원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가정에서 보다 안심하고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인부부가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요양서비스 재가사업자들이 ‘24시간 안심콜 시스템’ 등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야간 대응시스템을 개발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숨겨진 재능 맘껏 뽐내야지”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능경기 대회가 6월 25일부터 3일간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등지에서 치러진 가운데 6월 26일 사회복지법인 춘강에서 열린 양장 기능경기에 출전한 참가자가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고 있다.

도내 최초 ‘장애인 창의력발명교실’ 개설

제주상의, 주1회제장복서 교육 실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창의력 발명교실’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설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 제주지식재산센터는 매주 수요일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식재산 교육의 날’로 정하고 6월 25일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및 발명품 만들기 공작교실’을 실시했다.

오는 23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장애인 창의력 발명교실’은 발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발명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잠재력 있는 발명가를 발굴, 육성하고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데 기여하

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중앙중학교 발명교실이 실습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철·김창건 교사가 발명교육 강사로 활동한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발명교육을 통해 발명문화의 저변을 확대함은 물론 지식·정보화 시대에 제주를 이끌어 갈 발명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지식재산권 창출과 발명문화의 확산을 위해 기업체, 학교, 기관·단체에서 지식재산권 교육을 요청하면 강사와 교재를 무료로 제공해 발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 ‘우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42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기관 평가에서 도내 4개 의료기관이 우수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응급의료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 24시간 응급실 전담 전문의 진료체계 구축 여부, 응급환자 전용 응급의료시설 및 장비확보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인 한라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인 한국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각각 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사회복지아카데미 7월 교육 안내

■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요원교육
일시 : 7월 8일 (화) 1회차 - 09:00~13:00
2회차 - 14:00~18:00
내용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 운용 실무
참가비 : 무료

■ 제안서 작성 및 기획
일시 : 7월 10일 (목) 10:00~17:00
내용 : 제안서 작성 사전기획요령, 기금지원기관/기업의 종류 및 지원 프로세스 방법 리서치, 기금지원기관별 특징/주안점 파악
참가비 : 회원 10,000원, 비회원 20,000원

■ 사회복지시설 영양사직무교육
일시 : 7월 15일 (화) 14:00~17:00
내용 :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영양관리
참가비 : 회원 5,000원, 비회원 10,000원

■ 전사회계시스템 실무교육 (전사회계2급 자격취득지원반)
일시 : 7월 21일 (월) ~ 8월 7일 (목)
14:00~18:00
내용 : 복지부기이론 및 전사회계실기교육
참가비 : 회원 50,000원, 비회원 70,000원

제주시, 저소득 노인 건강검진 실시

제주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에 위탁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25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항목은 혈액검사, 혈소 검사, 흉부검사 등 11개 항목이며, 검진 결과 의심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2차 검사가 실시된다. 2차 검사항목은 결핵, 심전도, 간질환, 신장질환 등 30개 항목이다. 2차 검사에서 유질환자로 판명되면 종합병원에 의뢰해 최종검사를

받게 된다.

1·2차 검사는 무료이며, 3차 검진은 본인부담금 중 1인당 최대 15만원을 제주시가 지원한다.

한편 제주시는 1996년부터 매년 저소득 노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차 검진 결과 75명이 의심자로 판명돼 2차 검진을 받았다. 2차 검진 결과 66명이 3차 정밀검진을 받았으며, 이 중 장기진료가 필요한 노인 22명이 발견돼 장기 진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저소득층에 유가보조금 月 2만원 1년간 지원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유가보조금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수당 대상(1~2급) 가구에 유가보조금을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가구당 월 2만원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일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1691가구, 차상위 중증장애수당 대상 357가구 등 총 1만2048가구에, 28억9200만원이 투입된다.

이는 최근 유가상승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생활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돼 이들 가정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현재 매월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보육료 전액 지원, TV수신료·전화(이동전화 포함)·전기료 감면 등 다양한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저소득층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생활안정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시켜 나갈 방침이다.



사회복지협의회 4·5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사용내역	금 액
재가결연후원	1,340,000	재가결연대상자후원	1,340,000
난치병환아후원	270,000	-	-
복지사업후원	1,920,000	복지사업	2,338,83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탐방

(8)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과 함께 숨쉬는 세상을 꿈꾸며

빛줄기가 세차게 내리는 여름의 문턱,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박한샘)를 찾았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1995년 문을 연 이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 지역 여건에 맞는 청소년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박한샘 소장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들을 끌어안는 허브(Herb)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그 길을 가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그조차도 모르는 청소년들과 함께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및 활성화 사업 ▲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사업 ▲기관연계사업 ▲소외·위기 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홍보사업 등 청소년 상담을 비롯해 긴급 구조·치료·자활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역할 그리고 청소년 문제 및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사업이며, 이를 위해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연계기관 실무자 등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사업이 있다.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사업으로는 부모교육 특강, 부모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아버지교실, 청소년집단프로그램지도자 양성교육, 학습클리닉 지도자 양성 교육, 그리고 학교상담 지원사업 등이 있다.

기관연계사업은 인터넷중

독 해소 지역협력망 구축사업,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사업(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연계), 대안교실 운영(교육청 연계)을 하고 있으며, 실제 청소년 및 교사, 학부모들을

박 소장은 “청소년들과 만나 보면 ‘나는 누구인가?’ 혹은 ‘미래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없어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았다”면서 “이제 우리들은 청소년의 의견에 귀를 세워야 하며 함께 참여를 이끌어 내 스스로 문제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네트워킹할 때”라고 말했다.

또 “청소년을 이해하며, 기다리며 자기성찰

을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애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긍정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먼저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고 웃어주는 가슴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064)759-9951~2, <이명자 명예기자>



대안교실 · 오름 운영... 청소년 보듬는 '허브' 박한샘 “청소년에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외·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은 일시(긴급) 보호소 ‘오름’ 운영, 위기개입 및 긴급 구조, 학업중단 및 소외·보호청소년지원사업, 거리상담(아웃리치), 청소년동반자, 멘토링 운영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동반자 사업은 취약지역 내의 청소년을 위해서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서비스를 통해서 정신적인 위로자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만덕 일대기다룬 점자도서 출간

제주여성의 표상이자 나눔과 베품의 삶을 실천한 의녀(義女) 김만덕의 일대기를 다룬 점자도서가 출간됐다.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관장 김세희)은 김만덕기념사업회 드라마 시나리오 공모전에 당선된 고려대학교 정창권 초빙교수의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를 저자와 출판사(푸른숲)의 협조를 얻어 접역, 출판했다.

이 책은 조선 최고 상인이 된 뒤 굶주린 백성들에게 전 재산을 환원해 많은 사람들을 구한 김만덕의 일대기와 18세기 당시 제주문화사를 박진감 넘치는 필치로 표현했다.

신국판(155×225mm) 244쪽으로 발간됐던 내용을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점자 특성상

점자판(230×280mm) 상·하권 각각 159쪽, 158쪽 분량으로 발간했다.

제주도점자도서관은 “전국 시각장애인들이 이 책을 통해 김만덕이 보여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이어받아 곁에 있는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전국 점자도서관과 맹학교 등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점자도서관은 전국 최초로 제주속담으로 쓰여진 에세이 ‘식개칩 아이 톱싹다’와 ‘제주요를 100선, 오름 길라잡이’, 창작동화책 ‘검둥이를 찾아서’와 ‘누렁이를 삼켜버린 안개산으로’를 점자도서로 발간, 화제를 모았었다.

2분기 저소득층 자녀 학비 6억원 지원

도교육청, 중고생 6340명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자녀 6340명에게 2분기 학비 6억 7000여만원을 지원한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로 2244명에게 8000여만원, 고등학교 수업료로 1901명에게 4억 7000여만원,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로 2195명에게 1억 1000여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1분기에 6263명에게 지원한 것보다 77명이 증가한 것. 그러나 지원액은 변동이 거

의 없다.

제주도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행정사에서 학비를 지원 받는 법정 저소득층 가정의 중·고등학생에게 학교운영 지원비를 지원하고, 그 외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도시 자영업자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교육의 기회 균등과 생산적 교육복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 교통비 지원

제주시, 6월 현재 204명에 3000만원 지원

제주시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도외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항공료 또는 선박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백혈병, 악성신생물, 만성신부전, 혈우병, 파킨슨병, 면역결핍증 등 107종)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전문병원 이용을 위해 항공 및 선박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월 1회 기준으로 연 12회까지 전액 지원한다. 제주시는 6월 현재 204명에게 총 300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했다.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도외 병·의원 진료 후 항공료 및 선박료 영수증,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622명(국민기

초수급자 476명, 차상위계층 167명, 기타 19명)이다.



제주농아인 체육대회 개최

제3회 제주농아인 체육대회가 6월 28일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옛 제주교대) 체육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아인체육연맹 주관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농아인 회원과 가족, 자원봉사자, 후원인 등 16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화합을 도모했다.



찾아가는 학교사회복지 문화체험 '호응'

6월 28일, 구좌·조천 방임 아동·위기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세대-지역사회 네트워크 키움사업단(단장 양창성)의 '찾아가는 학교사회복지 문화체험' 프로그램 중 '생태 체험'으로 나비공원(푸쉬게 월드)을 찾았다. 비가 많이 내려 '습지탐방' (물영아리옴)에서 '생태 체험' (나비공원)으로 바뀐 이번 시간은 6월 14일 제주 산업정보대학 관광호텔조리학과 실습실에서 진행된 '해피쿠 킹스쿨'에 이은 두 번째다.

이번 문화체험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나비와 곤충의 성장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나비의 세계를 체험하고, 곤충과 애완동물들을 직접 만져보기도 했다.

한 초등학생은 "나비도 많이 보고 벌레를 직접 만져보니까 간지럽기도 하고 기분 좋다"며 활짝 웃었다.

자녀와 함께 참가한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어서 좋았다"면서 "프로그램



소외 아동에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키움사업단, 카약킹 등 진행 예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박미란 사회복지사는 이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지역사회내의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

공하고, 지역청소년을 위해 개인,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찾아가는 학교사회복지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7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디자인 뷰티스쿨', '이색체험 카약킹'을 7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구좌·조천읍 지역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형제와 학부모, 학교 선생님 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키움사업단은 제주지역 아동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욕구와 정서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자존감 향상을 돕고, 개인-세대-지역사회를 연계하여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064) 784-7911.

〈조순옥 명예기자〉



지적장애인 직무 프로그램 운영

작업활동센터 일배움터

작업활동센터 일배움터는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적장애인의 직업적 잠재력 개발을 위한 직무 확충프로그램'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적장애인들에게 직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직무를 체험함으로써 직업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능 향상을 통해 작업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비즈공예, 켈트, 화훼장식, 서비스판매직무 등 4개 영역에서 자신의 적성과 특성을 고려한 배치를 통해 집중적인 직무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직무교육은 10월까지 계속되며, 이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올 연말에 전시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소/식/마/당

정신장애인·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당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은 정신장애인들과 부랑인들에게 지역사회 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고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과 부랑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5월 24일 제주시민회관에서 '제10회 정신장애인·자원봉사자가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신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한데 어우러져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새터민제주문화탐방 실시



아라중합사회복지관(관장 고두승)은 6월 6일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45명과 함께 제주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새터민들은 한림공원 쌍용굴 협재굴 식물원 등을 둘러봤으며, 경마공원에서는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는 제주시가 후원하고 북한선교센터가 협찬했다.

서귀포복지관, 간병인 교육 실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복지관 강당에서 주부 등을 대상으로 고용촉진단기적응 훈련과정인 '간병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직장인으로 갖춰야 할 예절 및 윤리, 안전관리 등 직업생활에 관련된 내용과 임종환자 돌보기, 환자의 영양섭취, 산보돌보기, 현장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동제주복지관-재능대학 산학 협약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희경)은 5월 27일 복지관에서 인천 중구에 위치한 재능대학 실버케어복지과와 산학 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재 파견 등의 산학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도모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사회봉사단과 외식나들이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과 제주케어하우스(원장 권혁선)는 6월 18일 대한항공 사회봉사단체인 다솜마루와 참조은회의 도움을 받아 제주 KAL 호텔 뷔페식당으로 외식나들이를 다녀왔다. 제주장애인요양원은 올해에도 중증장애인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한 대한항공 사회봉사단에 고마움을 전하는 한편 이런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희망했다.

유진재활센터 사회적응훈련 실시



제주유진재활센터(원장 최은미) 이용자 20여명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6월 14일 사회적응훈련의 일환으로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앞모임을 등반했다.

유진재활센터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채로운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도 플라잉디스크대회 열려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회장 김병호)은 5월 29일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도지부(회장 양예홍)와 공동 주관으로 애향운동장에서 제2회 전도 시각장애인플라잉디스크대회를 개최했다.

도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대회인 이 대회는 장애인생활스포츠 보급차원에서 시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부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멀리 던지는 디스크턴스경기와 표적물을 통과하는 아쿠라시경기가 열렸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제주노인복지센터는 6월 12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08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했다.

특히 어르신체조에 대회 참가자 가운데 최고령인 양효순(89) 할머니가 출전, 관심을 끌었다.

“장애인복지 변화에 맞는 정책결정 필요”

장애인시설 종사자 연수회에서 변용찬 박사 주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이대원)는 6월 26~27일 제주회트니스타운에서 장애인시설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08년도 회원시설종사자 연수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전적인 장애인복지 리더양성 및 회원시설 종사자간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한 교류의 폭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정책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연수회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는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추진배경과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변용찬 박사는 2007년 장애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한 결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현행 장애인 복지서



비스 확대시행으로 장기요양요구 충족 ▲별도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통합 실시등을 제시했다.

변 박사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설계하는 현 단계에서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3가지 방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판정체계 문제,

장애인시설 확충,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확보 등 인프라 확보 문제, 운영수가 문제, 운영주체 문제, 재원조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원 회장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석 및 협회 회원시설 종사자간의 화합, 회원시설 간 유대가 강화됐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현경애 명예기자〉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 (6) 매일유업 삼다점



“푸드뱅크, 소외계층에 큰 도움”

지난해 매일유업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푸드뱅크와 인연을 맺은 강대성 대표.

매일유업 대리점 사업을 시작하면서 판매하다 남은 유제품을 처리할 방법을 찾다 푸드뱅크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후원을 시작하게 됐다. 강 대표는 1년 남짓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현재 매월 50~60만원 상당의 물품을 푸드뱅크에 지원하고 있다.

대리점을 열기 전에 10년간 검도도장을 운영했던 특이한 경력을 보유한 그는 도장을 운영하면서 요양원과 양로원 등을 원생들과 정기적으로 방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강 대표는 검도 5단이며, 틈틈이 도장

에 나가 수련을 계속하고 있다.

강 대표는 “사업장에서 버려질지도 모르는 물품을 소외계층들에게 전달해주는 푸드뱅크 시스템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와 사회의 소외계층들 모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리점 문을 연 이후에는 바쁘다보니 전만큼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는 그는 대신 물품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소명 명예기자〉



강대성대표

5월 식품기탁자 명단 · 수량



▲ SMC
던킨 도너츠 = 도넛 9788개 ▲
명당양과 = 빵 200개 ▲바로방베이커리 = 빵 200개 ▲(주)금강축산유통 = 육류 280kg ▲(주)서찬문

축산 = 육류 120kg ▲(주)신세계이마트(신제주점) = 쌀 및 통조림류 40개 ▲CJ(주) = 식재료 및 음료 1500개 ▲(주)오투기 = 라면 등 부식류 1만 7110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알/림/마/당

■ 장애인영화 사전제작지원 공모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해마다 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는 장애인관련 영상물을 발굴, 영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4회 장애인영화 사전제작지원을 공모한다.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한 모든 장르(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극영화, 실험영화 포함)의 영화면 응모할 수 있다.

장애인인권영화제 홈페이지(www.dhf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주DPI 장애인영상미디어지원센터로 이달 말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DPI는 공모를 통해 5편 이내의 작품을 선정,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장애인인권영화제를 통해 상영된다.

문의=064)757-9897.

■ 8일 탐장복서 2009년 배분사업 설명회

제주사랑의열매(회장 한동후)는 오는 8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2009년 배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09년도 배분사업 지원방향 및 기준 설명과 프로포절 작성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문의=064)755-9810.

■ '당신의 위대한 힘을 꺼내라' 특강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는 오는 14일 서귀포평생학습센터 2층 강의실에서 여성들의 의식향상을 위해 행복다자이너 최윤희씨를 초청, '당신의 위대한 힘을 꺼내라'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한다.

KBS 아침미당과 MBC 아침풍경 등 6개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고 있는 최윤희씨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며 스타강사의 명성을 얻고 있다.

문의=064)732-3277.



학대후유증아동 지원프로그램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은정)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학대후유증을 겪고 있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 22명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품성개발, 테마체험의 3가지 테마로 11월까지 진행되며, 6월 14일에는 아동들의 생활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한 종합적응능력검사와 테마체험프로그램의 일환인 영화관람을 실시했다.

길센터, 종이컵 · 봉투컵 판매

길직업재활센터(원장 양은심)는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종이컵과 봉투컵을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종이컵 1박스(1000개) 1만3500원, 봉투컵 1박스(4000개) 2만900원이다.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문 즉시 배달이 이뤄진다.

한편 길직업재활센터는 지난 4월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다.

주문 및 구입 문의=064)796-5777, 725-6777.



제5회 장애인 정보검색대회

이병석군·현제훈씨 금상수상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대봉)은 5월 30일 복지관 정보화교육장에서 제5회 장애인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했다.

정보화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마인드를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25명이 참가해 지적장애인부와 기타 장애인부에서 정보검색과 문서작성에 대한 기량을 겨뤘다.

이병석(서귀포문성학교 고등부)군과 현제훈(한국신장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부)씨가 지적장애인부와 기타 장애인부에서 각각 금상을 수상하는 등 총 8명이 수상했다. 상품은 신세계이마트 서귀포점이 후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2008 장애인 정보화 한마당 예선대회와 연계해 치러졌다.



노인전화사기 예방교육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관장 전영록)은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물품사기판매 및 전화사기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와 함께 6월 3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경로당에서 노인전화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제주도노인복지회관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지속적으로 법률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롤로의집 농민사랑 협약

가롤로의집과 (주)농민사랑(대표이사 부정호)은 6월 14일 무균감자배양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주)농민사랑 임직원들은 지난해부터 월 1회 이상 가롤로의집 공동작업장 직업재활에 참가하고, 원예재배 등에 대해 협조를 하고 있다.

칼럼

분권교부세 폐지와 우려되는 복지사업



한 영 조

제주경살련 사무국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폐지되면서 사회복지사업 예산지원에 따른 또 한 번의 혼란이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분권교부세는 내년 한해가 지나면 또다시 보통교부세로 통합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복지사업 항목별로 지원되던 예산 배정방법은 지역의 재정 수요에 따라 일반적인 재원으로 통합 교부되고 이는 곧 사회복지사업 예산들이 여타 각종 투자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복지사업 총체적 후퇴 우려

가뜩이나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분권교부세의 일반교부세 전환은 복지사업들에 대한 총체적인 후퇴의 결

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운영의 지방 분권화와 함께 재정 분권화정책이 추진됐다. 당시 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대대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한 149건의 각종 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64건의 사회복지사업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종 보조금 사업들을 통합하여 5년간 한시적으로 포괄보조금이라는 방식으로 분권교부세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4년째인 2008년도 분권교부세는 국가예산 기준 1조 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받은 2008년도 분권교부세는 300억원 규모이며, 이 예산 가운데 70% 정도가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보통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3%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만큼의 증액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족쇄규정'이 될 수도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법 규정의 개정 또는 다른

대안 모색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교부세 신설 등 필요

뿐만 아니라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재원으로 교부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나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배분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예산도 보통교부세로 통합 지원되는 반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책개발은 소홀히 다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갈수록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추진하는 사업들마저 축소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교부세 폐지에 대한 사전 철저한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복지예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가 추진하는 대로 소극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만은 '복지교부세' 등을 통해 별도 관리하는 체제를 강구하는 방안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는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 모두 국가로 재환원될 수 없다면 최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노인복지만이라도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는 정책제안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시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 총회에 즈음하여

'더 나은 세상 만들기(Creating a Better World)'라는 주제로 제38차 세계스카우트 총회가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155개국에서 1200명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들의 문화 차이와 이념을 공감하고 보다 나은 스카우트 운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게 될 때며드급 행사이다.

제38차 세계스카우트 총회는 스카우트 10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새롭게 정립된 스카우트 브랜드 이미지 발표와 미지의 100년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등 스카우트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오고싶은 제주 각인시켜야

스카우트연맹은 영국의 장군 베이든 포우엘경이 1907년 브라운시 섬에서 20여명의 소년과 함께 야영을 실시한 것이 효시가 되어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국가와 인종, 계급과 종교를 초월하여 활동하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청소년 국제기구이다. 현재 155개국이 회원국(회원 2800만명)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32만명이 활동하고 있다.

2002년 7월 그리스에서 개최된 제36차 세계총회에서 제38차 세계총회 개최지로 한국이 확정된 이후, 국내에서는 3개 시·도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함께 노력한 결과 2005년 4월 제주 개최가 확정되어 그동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주개최를 홍보해 왔다. 이제 총회 유치 시 보여줬던 도민들의 뜨거운 열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축제의 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양화, 다원화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문화 자체를 상품화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총회에 참가한 세계인들에게 제주의 고유문화와 세계자연유산 등 우리의 것을 소개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킬 계획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은 정교하게 가공되어 고객의 선택을 기다리는 상품보다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자연 풍광, 제주인의 순수한 눈빛, 잔잔한 미소, 친절과 청결 등 제주 특유의 문화상품을 높이 평가하여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함은 물론 '다시 오고 싶은 제주, 만나고 싶은 제주인'으로 기억할 것이다.

우리 도에서는 총회를 통해 53억원 이상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신경제혁명'이라는 용어가 귀에 익숙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손님을 맞는 우리의 태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3년 전 총회를 유치하던 시기에 비하면 제주 여건은 한층 좋아졌다. 제주 자연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반열에 오르는 쾌거를 얻었고 뉴제주운동으로 도민 의식도 세계 수준급으로 향상되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무한한 자원을 세계인과 함께 누릴 때이다. 대한민국 제주가 총회에 참가한 스카우트 가족들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멋진 축제가 되도록 도민과 관련 업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요구된다.

기고

새내기 의료급여 관리사의 일년



정 명 숙

제주시 사회복지과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근무한 7년여 경험을 토대로 텔레케어 센터 새내기 의료급여 관리사로서 임용 1주년을 맞았다. 우리 간호사들이 스스로의 평가와 향후 도전적 모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시간이 유수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지난 일을 뒤돌아보면, 참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참 많은 일을 했구나 하고 내심 자랑스럽기도 하다.

병원에서 근무할 때에는 오로지 환자의 질병에만 관심을 두어 의료행위 및 간호 활동을 했었고 퇴원에 의의를 두고 일을 했었다. 하지만 의료급여 관리사는 간호사가 아닌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대변자로서의 역할이었다.

즉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역 보건 복지 서비스 기관 연계를 통해 지지 체계 구축 및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전화를 이용하여 의료이용 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약물 복용 및 오남용을 모니터링하여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고,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시 수급권자의 권익을 대변하며, 보호자의 역할이 필요할 경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 이 일을 할 때에 의료급여 업무자체가 생소하고, 별 매력도 느끼지 못했다. 익숙하지 않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그리고 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등 모든 일이

불편하고 힘들어 임상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일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우리 의료급여 관리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나서는 내 자리가 여기구나, 여기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당근도 채찍도 없기에 그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라는 막연한 생각은 접어 두고 이제는 새내기 의료급여 관리사인 내가 누구 못지않은 전화상담으로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고 직접 방문해서 수급권자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 등에 힘쓰고 있다.

수급권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침이 마르도록 전화를 하고 발로 뛰고 한 보람은 수급권자 분께서 서툰 글씨로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올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노력해달라고 할 때 아! 보람이 따로 없구나~ 바로 수급권자가 행복을 느낄 때가 보람이구나 하고 한 번 더 힘찬 다짐을 하게 된다.



제주지역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세미나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공공부문이 지원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6월 26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세미나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6월 26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김성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모델 구축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지역의 자원봉사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범적 미래의 입장에서 자원봉사 모델을 구축해보고 현재의 연장선에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자원봉사 모형은 기존 자원봉사활동의 영역과 범위의 연장선에서 그 분야와 전략들을 차별화 또는 중점화시킴으로써 가능하며, 이러한 차별화·중점화의 자원봉사전략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구상과 직결해 논의될 때 더욱 의미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자원봉사 모델이 구축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자아실현과 사회적 자본, 정부혁신의 전략, 인간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국가정책의

중요한 부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자원봉사활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이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만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바람직한 역할정립이 필요하다”며 “향후 자원봉사운동의 방향은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버넌스 시대에 제주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를 통해 복지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앞서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의식 전환

김성준 교수 제주 자원봉사 모델 방안 발표

“핵심산업 분야 자원봉사 범위 차별화 재난관리 분야 등 새로운 모델 구축” 주문

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모델 구축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구상을 꼽았다. 즉,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경제자치의 실현, 그리고 관광, 청정1차, 의료, 교육·첨단산업 등 ‘4+1’ 핵심산업 분야에 있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영역을 차별화·중점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4+1’ 핵심산업 분야의 경우 관광봉사단, 청정1차 관련 자원봉사단, 의료봉사단, 교육봉사단 등의 개발, 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제주세계평화의 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세계자연유산 지정 같은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비롯해 재난관리, 다문화정책, 외국어자원봉사, 실버자원봉사 분야 등 미래대응 차원에서 새롭게 준비해야 할 분야를 고려하여 자원봉사 모델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도민자원봉사운동으로 발전하려면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훈련, 인정 등 종합적 관

리 기능을 담당하는 매개 및 조정 조직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본래적 기능 외에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가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 확립과 아울러 센터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적정 인력의 충원과 배치, 상시적 전문가 및 지도자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 센터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평가체제를 통한 보상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원봉사 인증제, 자원봉사자 보험제, 자원봉사실적은 행제(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등 기존 자원봉사 활성화 제도에 대한 정비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실적의 연발정산제와 같은 새로운 자원봉사 지원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지역내 자원봉사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자원봉사센터 내

에 설치해 제주도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운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제주도 자원봉사모델에서 제시돼야 할 사항으로 ▲자원봉사자 정보의 정확하고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자원봉사에 대한 지역 교육활성화 방안 ▲자원봉사의 실질적인 활용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평가체계 구축 ▲관련 기관·단체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방안 ▲자원봉사관리자 전문육성시스템 개발 ▲자원봉사업무의 일원화 등을 들었다.

김종훈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장은 ‘외국어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외국어 상용화 조기 정착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어 자원봉사자들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도민들에게 외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를 유발하고 외국어 사용 확산에 큰 힘으로 작용해 외국어 상용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외국어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으로 ▲외국어 자원봉사자 인프라 구축 ▲도내 거주 외국인 자원봉사자 인적 네트워크 구성 ▲외국어 자원봉사자 집중 외국어 교육 실시 ▲국제회의 및 관광지에 외국어 자원봉사자 배치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위한 한국어·제주 문화 교육 ▲외국어 도우미 활동 등을 제시했다.



우리는 기름이 나지 않는 땅에 살고 있다
땅을 움직일 수 없어서 생각을 움직였다

[SK에너지는 세계 16개국 30개 유전개발로 우리 영토를 바꿔갑니다]

석유가 나지 않는 땅에 살아도 우린 산유국입니다.

SK에너지는 브라질, 페루를 비롯하여 카자흐스탄,

영국 북해에 이르는 30개의 유전을 개발하며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산유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